



지속가능한 한글의 가치

한재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 — 의사소통 체계 디자인, 한글

글자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기존의 글자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거나 유용하게 변화를 주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560여 년 전, 한국의 옛 이름인 조선에서는 실제로 예전에 없던 새로운 글자가 디자인되었다. 더구나 이 글자는 오늘에 이르러 7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고, 그 구실과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글’이라는 이름의 이 글자가 더욱 놀라운 것은 디자인 의도와 원리, 활용 방법과 만든 시기까지를 한 권의 책에 세세히 남겼다는 점이다. 한글의 처음 이름이기도 한 이 책 <훈민정음>해례본은 언어학이나 문자학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바 있지만, 최근에는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자인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책의 내용과 한글의 실상을 비교해보면,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이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산업화나 정보화 과정에서 남용된 기술과 지식의 폐해에 대해 다시 반성하게 되고, 현대디자인의 다양한 접근 방법¹⁾들이 상투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디자이너 세종 이도는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이치를 남다르게 꿰뚫어보았고, ‘차이’와 ‘소통’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으며, 사용자를 존중하는 ‘배려’와 ‘실용정신’을 디자인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디자인 동기와 발상이 독특하고, 통합적인 디자인 태도와 방법이 훌륭하다. 그 결과, 제자 체계와 원리의 확장성이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진화할 여지를 충분히 갖추었다. 이러한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국 사람들만의 글자가 아니라, 세계 어느 곳 누구에게나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의사소통체계로서의 가능성과 가치를 지녔다.

2. — 위대한 디자이너, 세종 이도

조선의 4대 임금 세종 이도(1397~1450년)는 소리가 나고 들리는 이치를 분석하고 자연의 원리를 응용하여 독특한 체계의 글자를 탄생(1443년)시켰다. 그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이다. 더구나 그 글자가 오늘날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도 또한 신기하고 믿기 어려운 일이다. 도대체 그렇게 체계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글자를 만들어낸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세종 이도가 왕세자가 되기 이전부터 책을 가까이 했고, 높은 학식과 교양을 두루 갖추었다는 사실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성리학을 중시했던 교육 여건도 한 몫 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종의 어진 성품과,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와 실천력에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배경이 백성(사용자)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고, 진정으로 쓸모있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응용하게 한 것이다. 세종 이도와 그가 만든 한글을 보면 창작 동기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한 사람의 디자이너가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 디자인 교육이 일궈야 할 인재육성의 방향과 교육체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를 되짚게 한다.

3. — 해설서가 있는 계획된 글자

디자인 해설서라 할 수 있는 <훈민정음>해례본에는 디자인 철학과 원리, 활용 방법 등이 자세히 밝혀져 있다. 착상이 독특하고 과정이 치밀하여 560여 년 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디자인이 어떻게 존재해야하며 디자이너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명쾌히 말하고 있고, 한글이 크고 멋지게 디자인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글의 특별한 가치와 그것을 창작과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실마리로 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책에 있으며, 한글이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3장 66면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세종의 창제 의도와 목적, 각 자모에 대한 설명, 디자인 방향과 원리, 자모의 조합방식과 체계, 활용방법 등이 예시와 함께 다루어졌고, 마지막 부분에는 해례본 저술에 참여했던 대표자 정인지의 글과 나머지 학자들의 이름과 편찬시기까지 자세히 기록되었다. 어느 집안의 가보로 묻혀 있다가, 1940년에 발굴되면서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때 부터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으며, 현재의 문체에 대한 개선과 보완 방향의 실마리도 찾게 되었다.

4. — 새로운 계통의 독창적인 글자

오늘날 세계 글자의 뿌리는 크게 세 갈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메르 설형문자, 이집트 상형문자, 중국의 갑골문자가 그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이 갈래들과는 전혀 다른 독립된 특성을 가졌다. 대부분의 다른 글자들은 구체적인 그림으로부터 출발해서 단순화·상징화·추상화·양식화·개념화되어왔다. 다시 말해서 그림문자(繪畫文字)·상형문자(象形文字)·표의문자(表意文字)·표음문자(表音文字) 등의 단계를 거쳐 온 것이다. 이에 비해 한글은 처음부터 소리글자(表音文字)의 성격으로 만들어졌으며,

소리를 초·중·종성 세 단위로 가장 잘게 쪼개어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²²⁾의 낱소리글자(音素文字) 형태를 가졌다. 더욱이 그 체계가 소리만이 아니라 의미까지를 아우르는, 곧 표음글자에 속하지만 표의성도 품고 있는, 인류사에 없던 독특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5. — 우주원리를 반영한 보편적인 글자

한글은 민족이나 언어, 국가와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나가 손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졌다. 천지자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완벽한 글자를 만들기 위하여 소리가 나고 들리는 이치를 찾아 사람의 조음 구조를 분석했고,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응용하여 소리에 담긴 정보와 의미를 상징화·시각화·체계화한 결과이다. 하늘·땅·사람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했고, 발성기관의 조음 구조와 형태를 음성학적으로 해석하여 체계를 세웠다. 이와 같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핵심 철학으로 삼은 근원적인 발상과 원리는 그 가치와 활용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연의 원리를 적용한 엄밀한 법칙과 유연한 적용성은 어떠한 소리나 음성의 표기도 가능하게 하므로, 글자가 없는 소수 민족의 표기 수단으로 시도하거나, 국제 음성 기호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리와 형태간의 상호작용성이 뛰어나므로 음성을 글자로 변환시키는 디지털 체계의 환경에서는 더욱 원활한 소통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6. — 최소주의가 적용된 경제적인 글자

한글은 단순한 요소의 생성과 조합으로 끝없이 전개가 가능한 기하학적 체계로 만들어졌다. <훈민정음>해례의 제자해에 의하면, 홀소리글자는 하늘, 땅, 사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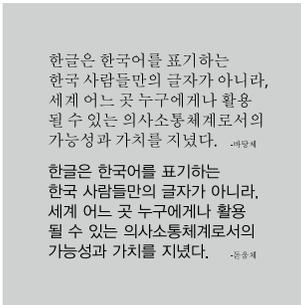


그림 1. — 널리 쓰이고 있는 현대의 한글 활자꼴



그림 2. — 원화 만원권 지폐에 그려진 세종 영정



그림 3. — <훈민정음>해례본의 예의편(例義篇) 부분, 세종 이도의 디자인 철학과 의도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으며, 한글 자모 28자의 조음 위치, 명칭, 음가를 한자음을 이용하여 예시하였다.



그림 4. — <훈민정음>해례본의 해례편(例義篇) 제자해(制字解) 부분그림. 집현전 학자들이 집필하였고, 한글 창제의 방법과 원리가 자세히 기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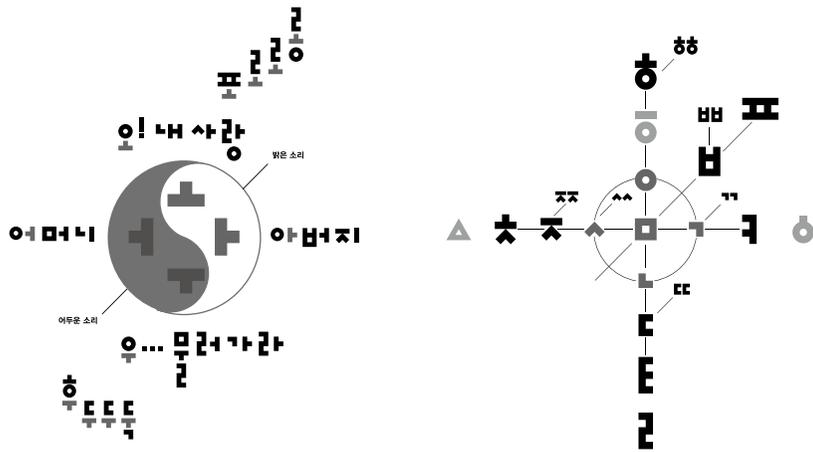


그림 5. — (왼쪽)홀소리글자의 표의성(表意性). 홀소리글자는 음양(陰陽)의 원리에 따라 체계화 되었으며, 소리, 형태, 의미의 변화체계가 일정하게 작동된다. ‘ㄱ’과 ‘ㅋ’는 밝거나 남성적이며, ‘ㄴ’과 ‘ㄷ’는 어둡거나 여성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그림 6. — (오른쪽)오행(五行)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글 닿소리글자. 소리와 의미와 형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시키고자한 실마리가 보인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 一, | 3개를 기본자로 삼았고, 닿소리글자는 가장 순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ㄴ, ㅁ, ㅇ 3개를 시초로 한 후, ㄱ 과 ㅅ을 추가하여 ㄱ, ㄴ, ㅁ, ㅅ, ㅇ 5개를 기본자로 정하였다. 나머지 자모는 이 8개의 기본자모에 가획과 대칭이라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조형원리를 적용하여 모두 28개의 자모 단위를 만들었다. 이러한 자모 단위로 ‘전환이 무궁하고 간단하게’ 합자(合字) 전개하여 천지자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한 방식으로 무한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체계는 최소의 변화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기술적 합리성의 경제원칙 개념에도 직결된다. 그래서 한글을 최소주의 글자이고, 경제적인 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7. — 산업화와 정보화에 유리한 과학적인 글자

한글은 소리 체계를 분석하여 그 소리를 일정한 규칙과 질서로 시각화한 글자이므로 그 발상이나 접근 방법 자체가 이미 과학적이다. 또한, 초성·중성·종성을 구분하는 삼분법의 특성으로 소리를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고, 말 뿌리의 구분도 수월하게 한다. 더구나 그 체계가 수학적이므로 자모의 출현순서가 일정하여 모든 글자는 닿소리글자+홀소리글자, 닿소리글자+홀소리글자+닿소리글자(받침)의 순서로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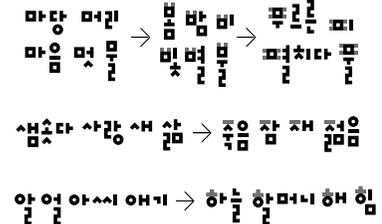


그림 7. — 닿소리글자의 표의적인 실마리. 글자 줄기의 체계적인 변화는 소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미의 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 가획 원리 적용 예. 같은 계열의 소리는 줄기를 더하는 형태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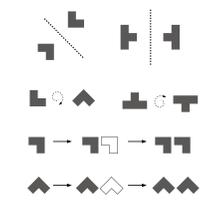


그림 10. — 대칭 원리 적용 예. 각각 선대칭, 방사대칭(회전), 이동대칭(반복)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그림 8. — 한글의 기본 형태소. 창제 때의 한글꼴을 분류·분석해 보면 한글의 바탕꼴이 위의 6가지 임을 알 수 있다.

향동배
회후뽀

그림 11. — 닿소리글자의 조합의 예. 가로로 나란히(並書) 또는 아래로 위 아래로 이어서(連書) 조합하는 원리가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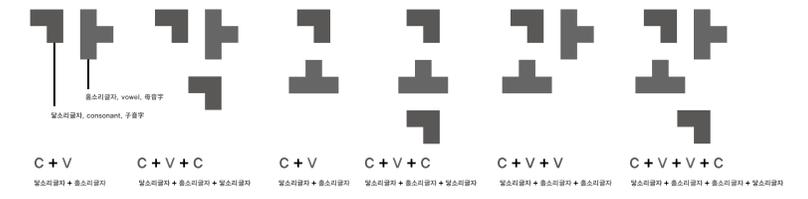


그림 12. — 닿소리글자와 홀소리글자의 기본 조합구조. 닿소리글자와 홀소리글자는 위의 6가지 기본 구조로 조합 구성(合字)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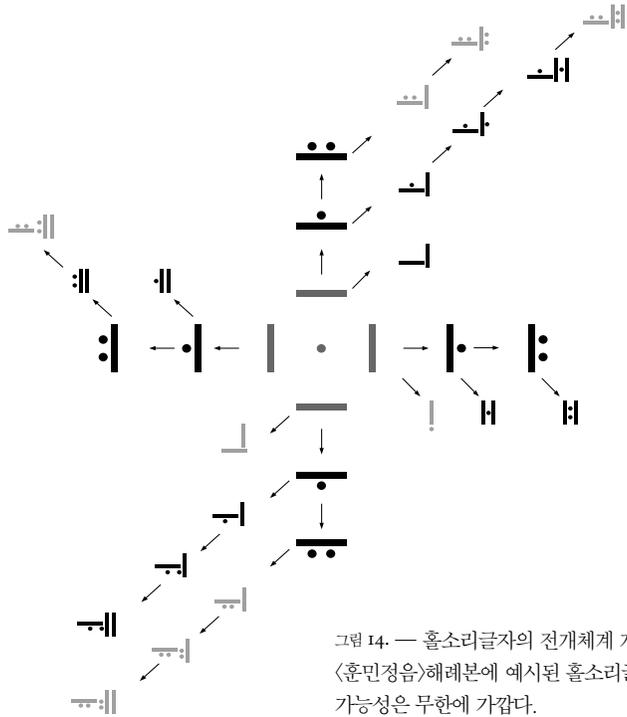


그림 14. — 홀소리글자의 전개체계 개념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예시된 홀소리글자만으로도 그 확장
 가능성은 무한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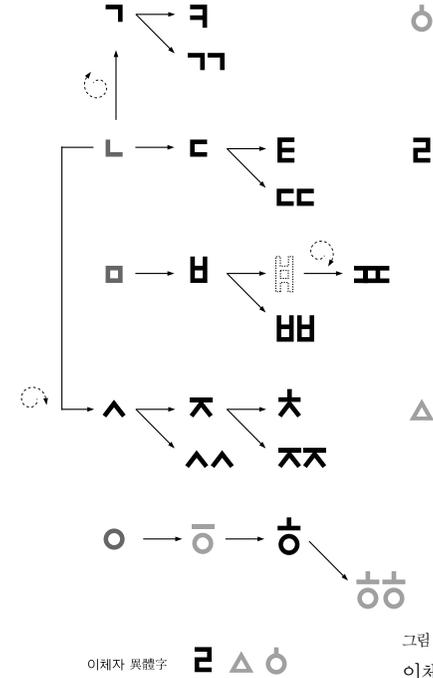


그림 15. — 닿소리글자의 전개체계 개념도.
 이체자로 구분된 세 개의 자모 ㄹ, ㅍ, ㅇ도
 비록 줄기를 더하는 체계에는 일치하지
 않으나 소리와 형태의 연관성은 유지되었다.

활용된다. 이 외에도 닿소리글자와 홀소리글자의 형태 구분이 확연하고, 한 소리에 한 글자가 대응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또한 같은 계통의 소리를 표기하는 자모의 형태 변화체계도 과학적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정보를 기억하고 연상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표기법을 명확하게 하고, 산업화나 이진법 체계로 응용되는 디지털화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8. — 모든 것이 어우러진 통합적인 글자

앞에서 구분하여 밝힌 여러 특성들은 실제로는 하나처럼 동시에 작동된다. 하늘과 땅과 사람도 각각 이름과 실체는 다르지만 하나의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소리와 글자와 의미도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찬찬히 살펴보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훈민정음>해례본에서 밝힌 '천지(天地)의 도(道)는 오직 음양오행(陰陽五行)일 뿐이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부분이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실마리를 찾아내려면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볼 때, 비로소 그 속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9. — 다시 태어나는 한글, 오늘과 내일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은 놀랍고 흥미로운 글자이다. 크고 멋지게 디자인되었다. 글자와 소리의 관계가 절묘하게 조화되었고, 의미까지 아우르는 실마리가 보인다. 눈과 귀와 머리를 하나의 체계로 반응하게 하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소리와 글자가 함께 작동하는 통합매체 적용에 유리하고, 정보소통의 상호작용효과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한글이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창제 때의 한글이 높은 철학과 완벽에 가까운 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알파벳의 꿈'이 사라질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단순한 글자'라는 찬사들도 이어지기 어렵다. 오늘의 한글은 복잡하고 산만하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글자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현행 글자꼴로는 한글의 진짜 가치를 설명하기에도 모순되고, 그 우수성을 실제로 체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마다의 편익과 일상의 관습, 시대의 변화와 유행에 따라 적당히 변용해 온 것이다. 부분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있었으나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했고, 해설서의 내용도 관심 밖에 있었다. 그러는 동안, 560여 년 전에 이도가 일궈냈던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과 원리는 퇴색하고 변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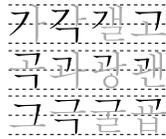


그림 16. — (왼쪽)복잡하게 구성된 오늘의 활자꼴. 줄거리용으로 쓰고 있는 대부분의 활자꼴은 하나의 활자꼴에서도 여러 형태의 자모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7. — (오른쪽)손전화 입력방식. 한글의 과학적 특성을 반영한 손전화 입력방식은 대중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실감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손전화 입력 방식이 4종을 넘고, 다른 형태의 단말기까지 합치면 무려 20종이 넘는 입력체계를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글자 정보소통 체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방지되어 있는가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자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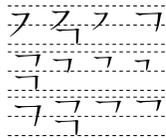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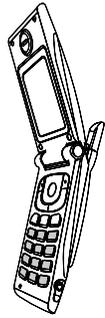


그림 18. — (아래) 1990년 이후에 유통되고 있는 활자꼴의 새로운 경향. 활자 활용 매체와 활자 제작 도구의 변화, 가로짜기 조판체제의 영향과 한글의 특성을 반영해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관습적인 네모틀을 벗어나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들은 한글의 미래를 기쁘하게 한다.



원본서 한글창제원리와특성	원본서_원문고서 건강하고아름다운활자꼴	이문서 한글창제원리와특성
정현서 한글창제원리와특성	이문서 건강하고아름다운활자꼴	이문서 한글창제원리와특성
신동_김지민 한글창제원리와특성	한문서 건강하고아름다운활자꼴	문디자인_김도익 한글창제원리와특성
신동_스채서 한글창제원리와특성	문디자인_문영호20 건강하고아름다운활자꼴	문디자인_박태리소미 한글창제원리와특성
안상수재 한글창제원리와특성	문디자인_배영서 건강하고아름다운활자꼴	문디자인_윤재 한글창제원리와특성
이문서 한글창제원리와특성	문디자인_윤재 한글창제원리와특성	문디자인_이문서 한글창제원리와특성
신동_김지민_문영호 세종대왕의업적을기리는	문디자인_배영서 한글창제원리와특성	문디자인_김도익 한글창제원리와특성
문디자인_신동 건강하고아름다운활자꼴	문디자인_배영서 한글창제원리와특성	신동_문영호_박태리소미 한글창제원리와특성
문디자인_정현 가장훌륭한말씨를발견	문디자인_배영서 한글창제원리와특성	신동_문영호 한글창제원리와특성
신동_문영호_박태리소미 우리겨레로서는도도없는	한문서_배영서 한글창제원리와특성	문디자인_김도익_김도익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문디자인_정현_박태리소미 한글창제원리와특성	문디자인_배영서 건강하고아름다운활자꼴	문디자인_박태리소미 한글창제원리와특성

물론 그렇다고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행히도 한편에서는 진짜 가치가 되살아나고 있다. 창제원리와 원리가 반영된 활자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손전화 등 각종 단말기 입력 방식에서도 근거를 가진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숨은 공로는 무엇보다 <훈민정음>해례본의 발굴(1940년)에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이도의 디자인 철학과 제자원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한글의 본질적인 가치를 되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디자인 철학서이며,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이 없었거나 발굴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한글엔 희망이 없었을 것이고, 미래의 한글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방지되어 왔으나 해설서를 찾은 글자, 한글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다. 잠자고 있던 한글정신이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사용자들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었으며, 사용자들도 디자이너들에게 보다 더 근거가 있는, 문화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연속은 디자인된 한글의 본래 가치를 되살려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그 속에 담긴 디자인 태도와 철학, 원리와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상의 세계와 창작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주

- 01. — 이 글은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주제 연구결과에 그림을 더하고 보완하여 2009년 세종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 02. — User Experience Design, User Centered Design, Activity-Centered Design, Ecological Design, Green Design, Eco Design, Vernacular Design, Ergonomics Design, Organic Design...
- 03. — 한글의 일반적인 표기방식은 음절 단위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저자 가나다 순)
 국립국어원 편: 알기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 생각의 나무, 2008
 박현모: 세종처럼 — 미다스북스, 2008
 송현: 한글자형학 — 디자인하우스, 1985
 앤드류 로빈슨 지음, 박재욱 옮김: 문자이야기 — 사계절, 2003
 엘버틴 가우어 지음, 강동일 옮김: 문자의 역사 — 새날, 1995
 임용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과 훈민정음, 2008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82~299쪽.
 존 맨 지음, 남경태 옮김: 세상을 바꾼 문자, 알파벳 — 예지, 2003
 한계준: 한글의 디자인 철학과 원리 — 한국디자인학, 통권 제 42호, 서울: 한국디자인학회, 2001

한재준 외: 「곱고 바른 한글 활자꼴 개발의 필요성 연구」 연구보고서 — 국립국어연구원, 2007
 한재준: 탈네모틀 세벌식 한글 활자꼴의 핵심 가치와 의미 — 기초조형학연구. Vol.8. No.4. 서울: 한국기초조형학회, 2007
 한재준: 미래 한글을 생각함 —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글』, 94~99쪽, 한국어학회, 2008
 한재준: 한글은 글자다 — 세종대왕 탄신 611돌 기념 심포지엄, 『한글시각문화의 향방』,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2008

『訓民正音』(解例本)
 『訓民正音』(諺解本)

— 외국문헌 (저자 알파벳 순)

HAN, JAE-JOON: Changing Forms of Hangul Typeface: Past, Present and Future. Visual Humanities. Osaka University The 21st Century Coe Program. Group6. Interface Humanities Research Activities 2002*2003., 2004
 HAN, JAE-JOON: 'The Current State of Hangul Font Design', IDEA. Tokyo: Seibundo Shinkosha, 147-152pp., 2004
 HAN, JAE-JOON: 'THE HANGUL ALPHABET OF KOREA'. TYPO, Issue 31, Spring, 2008
 MAN, JOHN: Alpha Beta, John Wiley & Cons, Inc., 2000
 SAMPSON, GEOFFREY: Writing System, Stanford University, 1985

— 웹사이트

<http://www.icograda.org/feature/current/articles1181.htm>

초록

한글의 디자인 배경, 철학과 원리에는 다양한 가치와 실마리들이 담겨 있고, 이미 언어학이나 문자학 관점의 가치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글이 소리와 의미를 아우르는 매우 독특한 표기체계 디자인이라는 사실과 그 속에 담긴 또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조차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따라서 그러한 가치와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실마리들이 온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의 환기를 위하여 한글의 창제 배경과 원리, 한글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한글의 지속가능한 여러 가치들을 디자인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드러내었다. 또한, 이러한 가치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먼저 사용자들 스스로가 현재의 한글에 대해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특히 디자인 해설서인 <훈민정음>해례본의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널리 알려야 함을 시사하였고, 한글이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국의 글자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의사소통 체계로서의 가능성을 가졌음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Sustainable value of Hangeul

by Han Jae-joon

The background of design,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Hangeul contain various values and clues. Although the value of linguistics or graphonomy has been widely recognized, even users are insensitive to the fact that Hangeul is a very unique writing design system embracing sound and meaning. Lots of things have to be extracted from the value of Hangeul.

This study specifically described the background and principles in creating Hangeul and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Hangeul to remind this actual situation, and emphasized the various sustainable values of Hangeul. Moreover, if these values have to be sustainable, designers and users should have problem awareness on current Hangeul. And the contents of <Hunminjeongeum> manuscript should be widely published in easy type for more people to be able to understand them.

Also, this study emphasized that Hangeul is the character which can be possibly used as one communication system for everyone in the world as well as characters to display Korean.

키워드

지속가능한 디자인, 한글, 훈민정음, 세종 이도
 Sustainable design, Hangeul, Hunminjeongeum, Sejong Yi Do